

2018-CR-01-04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8-04

마을만들기와 사회복지서비스

조미형



**마을만들기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구책임

조미형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원

연구진

이인선 함께하는연구 연구원

이정은 함께하는연구 연구원

최보라 함께하는연구 연구원

조영은 함께하는연구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마을활동 참여확대·세대별 욕구반영 포함해 사회복지기관·마을만들기 새 관계맺기 필요

지역 내 마을·복지 어떻게 만나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마을공동체 육성 추진과 함께 2014년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을을 활용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권 안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위탁되어 온 사회복지서비스와 비제도권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들여다봄으로써, 각각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문제와 욕구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 정책의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동주민센터와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봄으로써 마을과 복지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와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마을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 등 8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방문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주민이 마을활동가가 되는 과정을 다음의 네 사례로 제시하였다. ① 자녀를 키우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② 일상생활이 봉사활동이다, ③ 아이 주변에서 일하려고 마을기업을 만들다, ④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다가 그것이다.

마을공동체사업, 성과중심의 사업 운영 등으로 문제점 노출

그리고 이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토대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민 활동의 모습들을 분석적으로 기술하였다.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은 아동 체험 등을 위한 부모커뮤니티 활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의 학교 전이 시기에 따라서 활동이 지속되거나 마을활동, 주민연대로 활동이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아직 단순 봉사활동에 머무르기도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개별 공동체들이 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대별로 욕구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 주민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 안에 주민조직은 많지만, 새로운 주민을 발굴하기 어려워 많지 않은 주민이 여러 활동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한계는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예산 지원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해 사업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 초창기에 비해 주민 요구 사항의 수준이 높아져서 중간지원조직이 더 전문화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인터뷰한 마을기업은 실제 이윤보다 사람을 생각하며 마을기업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사전 교육이나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단으로서의 사업 내용이나 방식보다 중요한 본질인 사람이 간과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빠르게 성과를 산출해야 하는 공공의 짧은 사업 주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며,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문제를 돌볼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을 복지, 취약계층 지원·서비스제공자 측면에서 공통점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업 내용과 서비스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기관과 공통성을 갖는다. 사회복지기관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복지관을 지원하는 역할로 마을사업에 참여하기도 하며, 이는 복지관의 주민조직화 사업의 하나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일선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과 주요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공식적인 연계가 없다.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네트워크하고 있을 뿐이다. 둘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지만, 그 단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주민들을 사회복지기관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나 마을활동가로서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을 수행할 때, 기관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 보조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주민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공간, 사람, 자원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우미 역할에 그친다고 느낄 때 활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복지기관, 마을공동체사업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 반영해야

단지 주민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임 자체가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여 활발히 활동하다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3
02 주민은 어떻게 마을활동가가 되었나	6
1_자녀를 키우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6
2_일상생활이 봉사활동이다	9
3_아이 주변에서 일하려고 마을기업을 만들다	11
4_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다	14
5_소결	17
03 마을활동은 어떤 모습인가	20
1_마을공동체 활동	20
2_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6
3_마을기업 준비와 활동	31
4_소결	37
04 마을과 복지는 어떻게 만나는가	40
1_사회복지기관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40
2_마을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43
3_소결	45
05 제언	48

표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 정보 및 일정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마을공동체 육성 추진과 함께 2014년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을을 활용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에서 마을공동체가 강조되는 등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서비스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역사회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영역 중의 하나가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 가정 안에서 해결해 오던 돌봄이라는 이슈가 사회로 나오면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증가하는 다양한 돌봄 수요가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적인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둘 간의 충돌이 생긴다. 따라서 제도권 안에서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위탁되어 온 사회복지서비스와 비제도권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들여다봄으로써, 각각 지향해야 할 방향과 각 주체의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내 마을공동체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상호적 관점을 확대하고, 향후 협력방향, 역할, 구조의 대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와 마을공동체의 협력 및 역할분담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서비스 누락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마을공동체 안에서 해결되고 있는지, 공공의 서비스 전달자를 대신하여 주민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문제와 욕구 해결에 도

움이 되고자 한 정책의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마을활동가들이 각각 서로에 대해 어떤 관점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돌봄 활동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과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제언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심층면접 등으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주민들의 봉사활동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와 한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민이 마을(지원)활동가가 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는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본다. 셋째는 마을과 복지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심층면접은 5회에 걸쳐 총 8명을 대상으로 1~2시간가량 실시하였다. 대상자 정보 및 실시 날짜는 다음과 같다.

[표 1-1] 심층면접 대상자 정보 및 일정

심층면접 대상		심층면접 날짜	보고서에서 인용할 때 표기
동주민센터(찾동)	통합사례관리 담당	6. 7.	①
	동복지협의체 담당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 ㄴ씨	6. 21.	②
	주무관		
마을기업	대표 ㄷ씨	7. 3.	③
마을활동가	40대 후반 여성 ㄱ씨	8. 27.	④
	50대 초반 여성 ㄴ씨		
	60대 초반 여성 ㅎ씨	9. 13.	⑤

02

주민은 어떻게 마을활동가가 되었나

- 1_자녀를 키우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 2_일상생활이 봉사활동이다
- 3_아이 주변에서 일하려고 마을기업을 만들다
- 4_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다
- 5_소결

02 | 주민은 어떻게 마을활동가가 되었나

1_자녀를 키우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마을활동가 ㄱ씨, ㄴ씨는 40대·50대 자매로, ○○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 ㄱ씨와 ㄴ씨는 ○○동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학부모회 등 자녀와 관련된 봉사활동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지역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자율방범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왔으며,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녀 관심에서 지역 관심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ㄱ씨와 ㄴ씨의 지역에서의 활동은 자녀와 자녀 또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의 학교 학부모회에서 활동하면서 자녀 또래 아동청소년, 학부모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을, 아이들과 부모들이 애정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진짜 저희 목표는 행복한 ○○동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그 아이들이 좀 즐거웠으면 좋은 거.. (ㄴ씨)

맨 처음에 여기 이사 왔을 때 그 선배 엄마들이 ‘야. 공부하면 저 쪽으로 넘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학교의 문제점, 이 아이들의 문제점을 맨 날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이 ‘야. 이 동네 살면서 이 동네를 왜 욕하는지 모르겠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진짜 주소도 옮겨 놓는다. 그냥 여기서 키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학교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중략)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담배를 피거나 어디

모여 있으면 막 욱박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 2대를 피면 1대를 피라는 등, 그러니까 정말 저희 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중략) 아이들한테는 관심이 더 많아서 ‘엄마들이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살면서. (ㄴ씨)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이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면서 학부모회 등 학교를 통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에는 제약을 받게 되었다.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학교를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관련 활동을 마을에 뿌리내리고 싶었지만, 젊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심이 적고 이들과의 소통에도 제한이 있어 활동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는 학교 밖으로 활동을 넓혀 마을의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마을,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학교나 이런 데는 없고 방법활동을 하면서 젊은 엄마들을 같이 끌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진 못 했지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기 개성대로 키워 놓고 있으니 엄마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은 밖에 나가 있지만, 저희는 항상 동네에서 이 경계 안에서 움직이니까. 우리 경계 안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수록 아이들을 지켜보는 눈길이 더 늘어나니까 저희는 그게 동네를 좀 따뜻하게 하고 아이들도 ‘아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관심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려고. (ㄴ씨)

ㄱ씨와 ㄴ씨는 자율방범대로 10년 정도 자원봉사를 하다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돌봄 관련 활

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활동가들과 주민들, 민관 단체 및 기관들과 접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활동으로 실천

ㄱ씨와 ㄴ씨가 생각하는 마을활동가는 기존 지원기관의 도우미 역할보다, 마을 주민을 돕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 고민하고 활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ㄱ씨와 ㄴ씨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돌봄 관련 활동을 시작했는데, 마을활동가와 봉사자들이 연령에 따라 활동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연령대가 많은 활동가와 봉사자들은 기존에 있는 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지원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40대·50대인 ㄱ씨와 ㄴ씨는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행착오 후에 지금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마을활동가와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ㄱ씨와 ㄴ씨는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이 달라서 그건 아닌 거 같다, '우리가 이 취지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센터의 도우미 역할이 아닌. 그래서 의견 대립이 있다가 지금은 저희는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그분들은 센터에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ㄱ씨)*

저는 '그런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쪽이고

어르신들은 ‘(우리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으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그냥 그러면 투 트랙으로 가자. 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거 같아요. (ㄱ씨)

2_일상생활이 봉사활동이다

ㅎ씨는 60대 여성으로, ○○동에서 30여 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 ㅎ씨는 20여 년 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지속해서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동주민센터, 적십자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성장

ㅎ씨가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된 계기는 가정 내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때 봉사활동이 많은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ㅎ씨는 남편의 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위로와 보람을 느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본인의 상황이 더 나쁘지 않은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편할 때 하는 거는 봉사가 아니야. 힘들 때 이걸로 위로받은 거지. 이걸로 위로받고 야기 아빠 병원비에 뭐에 이렇게 돈 벌면서 오히려 그걸로 나는 진짜 힐링을 한 거야, 봉사하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를 보면서 오히려 만족해 하는 게 있었죠. 힘든 장애인 식구를 봤을 때도 ‘이 것만으로도 만족해’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힘들수록 봉사를 하고, 그게 은근히 만족을 줘요. ‘어머, 가 보니까 나보다 더 저거 한 사람이 있네.

그럼 난 이걸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거.

또한 ㅎ씨는 봉사활동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으며, 생활에서는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는 습관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돌아보게 되고 낭비를 오히려 안 하게 되고. '어머, 잘해야지' 그러니까 함부로 쓰지 않게 되는 그 절약정신도 겸해지더라고. 저소득층을 만나러 가면서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단출하게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완전히 몸에 배더라고. 갈 때는 액세서리 해서는 안 되고 루즈 바르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장애인센터를 갈 때 장애인 애들이 액세서리를 달라고 잡아당겨요. (중략) 그러니까 정말 절약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건 맞는 거 같아. 내가 '그래, 내려 놓으면 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원봉사활동에서 사회복지 전공으로

ㅎ씨는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복지 전공까지 이어진 사례이다. ㅎ씨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전문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학업을 다시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유아 교육,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저희 봉사를 하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모르는 걸 찾아 드리자 해서 다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다시 전문대를 갔어요. ○○전문대를 가서

*복지사 자격증, 유아 교육, 보육사 자격증 다 따 갖고 왔잖아 왜. (중략)
‘아, 나 좀 공부를 해봐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씨는 동복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요즘에도 손자를 돌봐야 하는 오후 3시 전까지는 캠페인 활동, 어르신 돌봄, 적십자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일과를 채우고 있다.

3_아이 주변에서 일하려고 마을기업을 만들다

마을활동가 씨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울시 일자리 나눔 사업의 하나로 아동돌보미로 일하였다. 씨는 그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급식비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기업에 도전하게 되었고, 2년여의 노력으로 행사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을 하고 마을 안에서 도시락 나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

씨는 다니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돌보미로 일하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 학부모들, 자원봉사자들을 만났다. 씨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영양사를 따로 두기 어렵고 예산도 부족해 아이들의 급식을 제대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마을기업을 알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일하면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나 거기 오신 학부모들 이렇게 해서 서로 인연을 맺고. (일)하는 중에, 여기에는 상가가 전혀 없었고 어차피 아이들이 늘어나면 또 정책적으로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큰일들이 생기는데, 솔직히 영양사 월급을 주면서 아동센터를 유지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매식을 해야 하는데 매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믿을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 급식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딱딱해서 한 끼에 5,000원 안에서 재료비랑 인건비랑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여름에 애들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 줄 형편이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윈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밥은 하기 쉬우니까 센터에서 하고, 반찬은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한 끼 이제 3,000원에 주게 된 거죠. 그러면 쌀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 줄 수 있는 약간의 여유분이 생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역량을 키워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 마을기업 지정

ㄷ씨와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은 마을기업에 도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기업 지정을 신청하였지만 떨어졌다.

‘아 그래? 그러면 그걸(마을기업) 한번 해 볼까?’ 해서 저희가 사경센터에서 컨설팅도 받고,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이 전 단계까지만 있어도 그런 마을기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0000년도에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법인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전 단계까지만 준비가 돼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중략) 사정하고 이러다가 사업자를 받고 해서 그걸 냈어요. 0000년도에 행사부까지 잘 올라가고 pt도 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사업을 포기하려던 차에 서울시가 이들에게 위키서울 스타트업의 예비적 마을기업 역량강화사업 참여를 권유하였다. ㄴ씨 등은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공모하였고, 채택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적은 예산이었지만 이를 통해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마을기업이 안 됐는데, 저희가 돈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다들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려고 있는 차에 서울시에서 연락이 온 거죠. ‘너무 아깝게 떨어졌으니 요번에 위키사업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5개년 사업이 있는데 이번 마지막 해에 예비적 마을기업이라는 파트를 하나,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니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걸로 먼저 한번 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도전해 보면 어떨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중략)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를 채택을 해 주셔서 예비적 마을기업 사업을 00만원짜리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게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낸 것들을 시뮬레이션해본 거죠.

저희는 이 위키서울을 통해 스스로가 그런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 위키서

올이 저희한테 정말 큰 중요한 영향이 됐던 거 같고, 또 예비적 마을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했을 때에 그걸 통해 저희가 나눔을 하면서 사실 저희 돈이 아닌 걸로 사람들 시식회를 했지만, 그 와중에 명절 때나 이런 때가 되면 홀몸 어르신들 반찬 나누기 사업 그런 것도 아주 많이 했거든요.

ㄷ씨 등은 위키서울 스타트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지만 마을기업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함께 시작했던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다시 참여시켰고, 마을기업 지정에 다시 도전하여 행사부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위키서울을 하고 나니까 저희 조합원 중에서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다.’ 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중략) 마을기업 사전교육을 받으면 2년간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았던 걸로 하면 할 수 있으니 해보자 해서, (중략) 현재 새로 오신 분들은 참여하는 거고 그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참여해 주셔야 가능한 거라서 (...) 설득해서 마을기업 사업에 다시 참여를 시켰죠. 사업계획서를 내고 0000년도에 마을기업으로 행사부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4_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다

마을활동가 ㄷ씨는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위탁가정을 통해 맡게 된 아이와 함께 마을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ㄷ씨는 위탁아동이 입양을 가고 난 뒤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

다. 그러던 중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 알게 되었고, 공모사업으로 교육도 받고 마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마을공동체지원조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자녀와 함께 시작한 마을살이가 봉사활동으로 연결

마을활동가 씨는 OO동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다. 씨는 직장맘으로 지내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로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자녀의 권유로 위탁가정을 하게 되면서 맡게 된 아이와 함께 동네 도서관 등을 다니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을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저도 예전에 보통 엄마들처럼 직장맘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동네에 4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고 직장맘으로 지내다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친정엄마가 양육을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있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서 학원에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근데 아이는 학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때마침 저도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아이 양육 때문에 일단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지역에 들어오게 됐는데.

마침 저희 아이의 권유로 위탁가정을 하게 됐어요, 해외로 입양 가기 전의 아이를. 정작 저희 아이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위탁가정을 하게 되면서 그 아이가 혼혈이고 아들이다 보니까 입양이 되지 않는 바람에 2년 동안 저희랑 같이 이 동네에서 살게 되면서 그전까지는 저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동네 도서관을 다니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사하게 되고, 이게 저의 첫 마을살이의 시발점이 된 거죠.

마을활동가 씨는 위탁된 아이와 2년 정도를 함께 지낸 후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 씨는 자식을 떠나보낸 마음으로 힘들어하다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즉,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언제 가나, 언제 가나 했는데 2년 만에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미국에 지금 입양을 가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진짜 자식을 보낸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고 체험하고.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마을활동가로 성장

마을활동가 씨는 동네 엄마들과 도서관 봉사활동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준비해서 하다가 마을공동체공모사업을 알게 되었다. 씨는 전문성을 키워보고자 마을공동체공모사업에 공모하였고, 첫해에는 탈락했지만 이듬해 선정되었다. 그녀는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도 받고, 더 좋은 재료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동네축제도 기획해보면서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을활동가가 되었다.

엄마들하고 책 읽어주면서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저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모으거나 재활용품을 주워서 했는데, 마을공동체공모사업에서 재료비랑 강사비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단순히 엄마인데, 독서 지도나 이런 걸 배워서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지원했는데 첫해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음 해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저희도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좋은 재료로.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동네축제도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아 마을이 뭔지, 마을 공동체가 뭔지 그리고 그냥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을 활동가라는 이름을 달게 되고.

5_소결

주민이 마을활동가가 된 과정은 다음의 네 가지 사례로 나타났다. ① 자녀를 키우면서 마을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② 일상생활이 봉사활동이다, ③ 아이 주변에서 일하려고 마을기업을 만들다, ④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다가 그것이다.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을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들은 주로 여성이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 관련 활동을 통해 처음 주민 모임이나 마을 활동을 접하게 되었다. 학교 학부모회, (어린이)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내 소규모 모임이나 자원봉사조직이 활동의 관문이었다. 전업주부로서 자녀의 육아 및 교육이라는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자녀가 성장해 가는 긴 기간동안 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먹거리, 건강, 안전, 환경, 교육 등 현안문제로 관심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적극적,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공식적인 활동의 장이나 지원을 통해 더욱 조직화된 활동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주어진 활동의 경계 내에서 요구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으로, 중간조직 실무자로, 마을기업가로 영역을 넓히면서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수평적 만남을 이루게 되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자녀를 둔 여성, 특히 전업주부는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마을활동에 뛰어들 충분한 동기가 있고,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교 학부모회와 같이 모임을 수행할 장으로서의 사공간적 자원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을활동가로, 마을기업가로 성장해 나가기 좋은 조건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마을활동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고, 돌봄 관련 영역의 문제로 한정되게 만드는 한계도 있다. 지역에서 청년층,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민들의 마을에 관한 관심을 끌고, 마을활동에 끌어들이고, 활동의 스펙트럼도 넓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03

마을활동은 어떤 모습인가

- 1_마을공동체 활동
- 2_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3_마을기업 준비와 활동
- 4_소결

03 | 마을활동은 어떤 모습인가

1_마을공동체 활동

1) 자녀 성장 과정에 따라 부모 활동이 지속되지 못함

부모커뮤니티 활동 자체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이뤄진 편이다, 하지만, 부모 자조 모임도 부모가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고, 아이들 체험학습을 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입학하면 흩어진다.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지만, 실적을 생산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욕구가 충족될 때는 지속되지만, 거기서 끝난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성장한 개인이 마을활동, 주민 연대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모 커뮤니티가 부모의 자조모임이거든요. 이게 부모가 성장해야 하는데 초점이 잘못 맞춰져서 아이들 양육, 마치 체험학습처럼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 죄다 캠핑가고, 거기에 아빠까지 같이하게 되면 점수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은 많이 아쉽죠. ②

부모 커뮤니티사업이 2012년도 초반부터 같이 했던 사업이고 사업 참여자 수가 가장 많고 능동적으로 이뤄졌죠. 근데 그 능동적인 건 딱 고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나왔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대다수는 흩어져요. ②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는 부모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마을모임을 하지만, 입학하면 학교 모임으로 옮겨간다. 그 중 일부는 초·중학교까지는 학교 안에서 학부모로서 마을 활동을 이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자녀를 매개로 한 활동은 거의 사라진다. 생애주기에 따른 마을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이집 시기에는 단합도 잘되고, 이 사업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창의력을 높게 키우자 그러면서 어쨌든 캠핑이든 체험이든 많이 하시지만 정작 학교에 진입하게 되면 반 모임에 집중하게 되고, 그게 맥락이 많이 못 이어지는 아쉬움이 있어요. ②

서로 정보 갖고 있으면 만나서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는 위로 아래로 뻗힐 수 있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아는 엄마가 없고 초, 중, 고가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조언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저거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뭔가요? 그게 저희의 고민이죠. ④

2)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서지 못함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주민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눠 주면서 그 집도 들여다보고 그들과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관계까지 형성되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돈 받아서 만들어서 나눠줬어, 뿌듯해. 이걸로 끝나는... ②

다음의 주민 활동 사례를 보면,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공무원의 잦은 자리 이동이나 봉사자 개인의 사정 때문에 지속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봉사활동일지라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관이나

복지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가 가서 한 번 들여다 본 아이와 혼자 사는, 그러니까 만약에 편모와 사는 아이들은 좀 안쓰럽잖아. 솔직히. 경찰이 한 번쯤 들러 주면 그 아이는 갑자기 기가 산다. 순찰하시다가 “이 집이 혼자 사는 아이의 집이다”라고 내가 말하면서 들려주시라 했어. 들어서 “내가 너를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면 애는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것이지.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차피 순찰차 돌면서 한 번씩 들어가서 봐주기만 해도 된다 이거지. ... 근데 그것도 지속이 안 되더라고. 내가 [자율방범대] 여성대장 할 때는 순찰차를 같이 타면서 했었는데 경찰들도 계속 바뀐다니까 지속이 안 되는데. ⑤

외국 여성들, 그때 열 몇 명을 제가 한글을 가르쳤는데... 봉사자를 모집해 갖고 아기를 봐 주고 한쪽에서는 한글 가르치고 해 본 건 많은데 나도 내 가정일을 하다 보니까 끝까지 할 수 없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었고 다 무료로 한 거였으니까. 만약에 돈을 벌고 했다면 이게 연속되었겠지. 근데 아니니까 하다가 중지하고, 중지하고. ⑤

3) 지역사회 안에서 개별 공동체 간의 연대 부족

그동안 개별적으로 해 오던 활동들이 이제는 연대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지역사회 안에서 개별 공동체별로 활동이 활발하지만, 그들이 서로 연대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간혹 경쟁자로 보는 경향도 있다. 또한 일부 공동체는 구성원들만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모임으로 외부와 교류 없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나한테 힘을 얻어줄 다른 사람을 같이 키워가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고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거죠. ②

개별활동이 강한... 각자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그들끼리 연대하기
는 조금 어려운. ②

나의 경쟁 그게 생기니까... 그래서 아쉬운 거죠. ②

자기들끼리만 뭘 사용하고, 그게 아주 더 견고해졌는데, 수용하는 게 아
니라 배척하기 위한 모임. 그러니까 좀 젊은 엄마들이 모여면서 그런 거
같아요. ④

4) 주민 연령대별로 활동에 대한 욕구 차이

40대 여성에서부터 60~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 젊은 층은 본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면, 어르신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에 초점을 둔 활동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층(예, 경력단절여성)은 이런 활동을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은 정기적인 활동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지만, 각자의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 활동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④

저희는 생각이 달라서 그건 아닌 거 같다. ‘우리가 이런 취지에 맞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센터의 도
우미 역할이 아닌. ④

저희가 배운 걸로... 아로마테라피 과정을 거쳐서 아로마 마사지를 하고... 꽃꽂이를 저희가 기초 과정을 개인 돈 내고 배워 가지고 꽃꽂이 수업을 했는데. ④

저희는 일단 직업이 있고 알하는 게 있으니까...시간도 안 되고 맨 처음에 우리에게 급여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시작한 거라, 우린 그럼 월 1회 참여하는 거에 의미를 두자. ④

그거는 시간 되시는 분. 그것도 활동하면 좀 활동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활동비에 이렇게 중점을 두셔야 하니까. ④

5)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음

지역 안에 다양한 조직이 있지만, 참여자는 크게 다르지 않고 조직별로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다. 또한 최근 정부가 마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창동, 도시재생, 혁신교육, 동북지협이체,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 실무자는 위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라는 요구 때문에 부담이 크고, 1) 사업을 기획해도 참여하는 주민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아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부탁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실적을 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느 단체든 가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있고 또 저기도 있고. 그리고 이름에 맞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딱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체만 열 몇 개가

1) 새로운 걸 쥐어짜 내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는 저희에게 그 아이টে을 재현하라고 하고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게 쉽지 않아요. ①

되는데 정말 활동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친목, 그다음에 개인의 사업을 위한 인맥관리 이 정도쯤으로 하지.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은 손에 꼽을 정도인 거 같아요. ④

지금 저희가 아무리 교육을 하려 해도 다 바쁘신 거예요, 저희 활동가가. 이미 활동가라는 명패를 다신 분은 굉장히 바쁘세요. 왜냐하면 찾동 있죠. 도시재생 있죠. 요즘 혁신교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로 계셨던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할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활동하는 게 많이 생기는 거죠. ②

치매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주로 ‘나눔이웃’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동이나 비슷하겠네요] 네, 약간 비슷해요. (중략) 저희 쪽에서 통장님들이나 그런 분 중에서 이미 활동하는 분한테 부탁하게 되는 거죠. 아예 생판 모르는 쪽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저희 쪽에서 활동하셨던 분 중에서 발굴하게 되는 거죠. 다른 동도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①

만날 그분들한테 뭔가 봉사를 권유하면 그분들한테만,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분 섭외하기도 힘들거든요. 그것도 상시로는… 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거기서 다 하시는 분들이라, 여기도 적혀있고 저기도 적혀있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죠. ①

지역 안에서 조직이나 모임을 결성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동안 참여해 온 사람들로 조직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지만, 실제 사업내용이나 방식은 달라지기 어려운 것이다.

2_마을공동체 공모사업

1)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예산 지원 사업이 가지는 한계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초창기에 도움을 받아 성장해 가는 공동체들도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면서 자발성이 퇴색하고,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다.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나 방향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주민들과 충돌할 때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은 사기가 떨어진다. 마을(지원)활동가의 인건비 지원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개인의 일자리 지원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또 다른 사업에 공모하여 예산 지원을 이어가기도 한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산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때문에 충돌이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거죠. ②

지원하는 예산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 안 하겠다고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객이 전도되는 것 때문에 매우 슬프죠. ②

처음에 활동하실 때,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초창기에는 도움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경제 지원도 하고 다른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초창기에 도움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자생을 해야 하는데 계속 도움을 쫓아다니시는 거죠. ②

인건비나 사업비가 이제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②

마을 지원 활동가 역시 스스로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 이제 아 이런 활동

을 해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부분을 전파하고 싶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 일자리 개념으로 지금 많이 접근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죠. ②

활동가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욕심이 더 크게 되면 좀 더 이제 정말 사회의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마을을 활동이지 내 그걸 챙기는... ②

예산을 쫓아가는 양상은 정부가 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안서를 잘 작성하는 일부 사람들은 여기저기 사업에 공모하여 중복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 이유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는 그 모든 걸 항상 빨리 하려다 보니까, 항상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공모를 하면 공모 틀에 맞게 사업을 어쨌든 만들고 그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예산을 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일률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쫓아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②

최근에는 한 모임이나 한 사람이 아주 많은 사업들을 중복으로... 예, 수요자가 되고 있어요. ②

반면, 공모사업을 계기로 활동가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

제가 만약에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왔을 거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 저도 성장한 주민 중 하나이기

때문에. ②

우리 이제 재로비가 지원되면 좀 더 많은 아이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 예전에는 (공모사업에) 진입이 됐다고. ②

2) 성과중심의 '사업'으로 운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는 실적 중심이다. 중간지원조직도 실제로 주민을 만나면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업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만나고 또 이제 주민과 이제 뭐 어떤 토론 이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모 사업 뒤치다꺼리하기가 바쁘거든요. ②

예산을 지원받으면 그 결과나 성과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측정 지표 자체가 해당 자치구의 공모사업 건수 라든가, 뭐 활동가의 양성 배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②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심사 가 조금 점수를 많이 받아요. 기특하다 이렇게. ②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수록 가점이 주어지는 평가 체계에 의해,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들을 사업에 참여시키지만 이들의 활동이 지속되지는 못한다. 어쩌면, 마을 안에 있는 청년은 이런 사업에 스스로 참여하기 쉽지 않을 만큼 무기력하고 역량이 미흡할 수 있다.2) '성공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환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을 공동체가 공격받는 게 40대 아줌마만 받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
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 내가 마을에서 뭐 해보아야지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보다는 이걸 스펙
으로 삼는 거예요. ②

3) 지원한 예산 관리에 대한 입장 차이

중간지원조직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챙기게 되지만, 주민들은 이 부분에 불만을 토로한다. 주민들은 세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정부는 관료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관료주의적 태도로 나타나는 폐해를 수도 없이 보아왔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행정처리를 잘하는 주민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보다 정부 지원을 받기 쉬운 것이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어차피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 돈은 내 돈이, 내가 못 찾아 먹으면 아까운 돈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 좀 깔려있다 보니까 돈 쓰는데 왜 이렇게 뭔가 증빙해야 할 거 결과보
고라든지 증빙서류라든지 중간에 해야 되는 게 많으냐, 겨우 얼마 주고서
는,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②

2) 늙은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더 [자립]하기가 힘들어요. 찾동하면서 젊은 사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 지원할 때마다, 회의를 하면 젊은 사람들이라서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저희 쪽에서도 나온단 말이예요, 복지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저는 워낙 어르신들을 많이 봐서 어르신들한테 지원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게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게 사시는 거죠. ①

이 사람이 젊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혼자 살아, 약 타러 병원에 다니는데 집은 난장판이야. 그러면 제가 뭘 지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①

예산 100만 원짜리 받아서 해 보지만 나라에서 돈 받으려면 서류니 뭐니 엄청 더럽고 치사해서 내 돈 쓰고 말지. 막 이럴 정도로 하잖아요. ④

4)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초창기에는 마을 상담하는 사람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마을활동가로 자리매김해 왔다면, 최근에는 이미 능력을 갖춘 개인이 활동에 참여하고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함께 만나가기 위해서는 마을지원활동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활동가라는 자체가, 저도 그런 마을 상담하는 사람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이리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그때의 저한테 서울시에서 얘기 해줬던 거는 잘해서 상담하는 사람이고 강사고 이게 아니라 주민이 자기의 역량강화를 통해 성장하는 단계를 위해 그런 경험을 겪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의 최대 수혜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단계보다는 오히려 주민이 더 많이 아세요. 워낙 인터넷에서 빠르게, 정보도 캐치하시고요, 다들 주민들이 선생님 같은 분들이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공부 마니아시고, 다 똑똑하시고. ②

이렇게 막 붙여놓고 하나씩, 가끔 여기 뭐하는 데예요 하고 와서 이런저런 거를 물어요, 그러면 몇 마디 안 나누면 벌써 아 그런 곳이군요. 본인이 검색하시고 저도 이런 거 있으면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소위 마을 지원활동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또 그런 것들에서 또 뒤처지게 되고 이런 데에 오는 딜레마가 있어요. ②

3_마을기업 준비와 활동

1) 사전 교육 및 심사 과정

사전교육에서 마을기업을 해 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도록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직이나 전문가도 아직은 제한적인 경험 안에서 서툰 모습을 보인다. 사례를 제시하는 교육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고민의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사업을 더 좋게 보고 있는지 그것도 (달라지고). 도움을 주신다고 교육을 하시지만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처음에 마을기업 역량강화 사전교육을 받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기초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 사업성을 놓고 좀 (안 좋게 말씀하시고). 마을기업 지원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망한다. 이게 잘 돼서 망하고 안 돼서 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되면 사람끼리 서로 욕심부리다 망하고 안 되면 너무 안 되니까 망하고. ③

왜냐하면 그 사람[심사위원]들은 이런 음식 장사가 잘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의 경험치예요. 그분들이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분들의 경험치인 거죠. ③

한번은 정말 필요하다 해서 교육을 갔는데 자기네 마을기업 했던 일들을 쪽 보여주고 업적 자랑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고. 이런 교육도 많이 받아 봤고. ③

교육이나 모든 것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누가 어떻

게 했다더라. 뭐 이거는 이랬다더라. 사실 정말 봐야 할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과 이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지 않나. ③

2) 사업 방향

경제와 사회가 결합한 사회적 경제 영역은 둘 간의 균형이 중요하고 어렵다.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수익에 집중하여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쉽다.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즉 그것은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일 수도 있는 가치이다.

사업을 좋은 취지로 받을 수 있지만 너무 이상적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보는 것도 예전에는 공익성을 되게 중요하게 봤지만 이제는 공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할 것이고 이런 지원이 어떤 밑거름이 돼서 너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③

저는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독립성, 사회성에 치우치게 되면 또 정말 봐야 하는 걸 못 보는 게 있어요. 정책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은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바꾸면 되는 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좋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원하는 효과는 낼 수 없거든요. ③

3) 마을기업 활동

ㄷ씨와 조합원들이 일하는 OO마을기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사업을 하고 작은 매장에서 분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윤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을기업 활동

급식은 균형 있는 식단으로 구성하고 음식은 신선한 재료와 좋은 공정으로 직접 조리하고 있다. 음식은 가용 예산의 한계가 있어 유기농이나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조리하고 있다. 모든 음식을 만드는 기준은 내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하루 한 끼의 식단을 마련하는 데 있어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메뉴를 짜니까 1일 세트로 한 끼를 가져가면 이걸로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메뉴가 바뀌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거. ③

분식 카페로 개업을 하면서 음료라든지 수제청이나 샌드위치, 샐러드를 수제로 다 만드는 거거든요. 유기농은 아니지만 신선한 재료로 먹을 만한 음식으로 저렴하게 아이들을 같이 먹이고, 여기서 가장 많이 먹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니까. 엄마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애가 먹을 거니까 너무 저렴하게는 못 가졌고 그렇다고 여기 특성상 유기농을 쓰기에는 단가가 안 맞고, 신선한 재료로 좋은 공정을 거쳐서 직접 먹어보고 만들어 보고 하는 거라서. ③

저희는 2,500원짜리 아기들 먹는 미니 컵밥도 불맛을 내면서 프라이팬에 다가 그때그때 조리해서 담아 주거든요. 그게 소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하나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버리는 것도 매우 많아요. 사람들이 먹다 남겨서 버리는 것보다는 야채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저희가 “이거 먹이겠어? 우리 애 못 먹여.” 기존에 내 애 먹이겠어? 안 돼. 좀 이상하면 버리고 저희가 좀 다들 까칠해서. ③

OO마을기업은 좋은 음식을 지역아동센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더불어 기존의 고용영역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경력단절여성, 건강약자,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루 8시간 온전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에게 인건비를 줄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좋은 급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 사업의 목적을 달성된 것이고 그를 넘어서 이익 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보통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가격을 올리겠지만, 이 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본래 목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취지를 지키고 있다. ‘필요’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이다. 이익을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닌 셈이다.

(처음에는) 아동센터의 학부모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그다음에 남자분 계시고. 처음에 함께하셨던 분 중에 20대부터 신장 투석을 하셔서 대학교를 나왔지만,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러 가셔야 하니까 그런 사람 어디서 써 주겠어요. 몸이 아파서 사회활동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모르는구나. 이런 게 아주 많아요. ③

저희가 시간제 일자리 국내 사업에서 채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타임쉐어를 통해 조금이라도 사회에 경제인구로 터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중략) 온전하게 여기에 올인 할 수 없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과 같이. ③

그렇게 (이익이) 남지는 않아요. 사실. 이거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드리고 재료비 하면 딱 끝나는 그런 일이지는 해요. 근데 저희가 저희 이익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지역아동센터는 똑같은 상태가 되니까 저희가 그런 취지로 시작했으니 그 부분은 우리가 잡고 가자 그랬죠.

먹는 사업을 하니 나눌 게 많다

OO마을기업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사업을 하면서 5인분의 도시락을 여분으로 만들어 분식 카페 매장에서 마을 내 1인 가족들이 사갈 수 있도록 판매하고 있다. 판매되지 않은 도시락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기증하고 있다. 또한 마을 내 재가노인센터에 반찬나눔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마을화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동센터 급식을 하다 보니 같은 메뉴로 매장에도 다섯 세트 정도 빼놓고 다 팔리면 파는 거고, 안 팔리면 저희가 홀몸 어르신들한테 기증을 하는 거고. 그냥 서비스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쿠폰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돈을 안 받고 반찬을 내드리고 나중에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수거해서 후불결제해 해 주시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마을활동가들이 돈을 받지 못 하니까 마을화폐를 발행해서 주시면 그걸 돈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다가 마을 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도시락이나 케이터링으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도시락 사업도 도시락을 쉼터에 기증하고, 마을 내 열악한 공부방에 도시락을 배달하는 나눔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예산이 필요한 경우 후원자를 개발하여 함께 지원하고 있다.

야동센터를 깔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도시락 싸 때 됐는데, 현강학습. 그러면 우리 애들 싸면서 같이 모여서 싸?’. ‘싸는 김에 그러면 주문 한 번 받아 볼까?’ 이래서 주변에 아는 엄마들한테 ‘우리 도시락 싸 건데 필요한 사람 얘기해 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락이 정착돼 버린 거예요.

OO초등학교 애들 도시락을 싸다가 보니까, 옆에 어린이집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저쪽에 있는 학교에서도 문의가 오고 엄마들이 암암리에 다 애기가 된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게 “우리가 블로그에 떴대.” 이라고.

도시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주변에 저희 OO쪽하고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OO쉼터에 컵밥 200인분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문화랑 저소득이 많은 곳에 열악한 공부방이 있어요. 지역야동센터는 밥값을 지원받는데 공부방은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 원 내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1끼 먹는 것도 힘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후원자를 찾아서 후원자가 일부 내시고 저희가 일부 후원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그쪽에 도시락 배달을 가요. 먹는 거를 하니까 나눌 게 많더라고요.

4_소결

마을에서 일어나는 주민활동을 ① 마을공동체 활동, ②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③ 마을기업 준비와 활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은 부모커뮤니티 활동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성장 과정에 따라서 부모로서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으로 학교 전이 때마다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거나 마을활동, 주민연대로 확대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단순 봉사활동에 머무르기도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개별 공동체 간에 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연령대별로 욕구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연령대 주민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여러 주민조직이 형성되지만 소수의 주민들이 여러 활동에 중복 참여하는 경향도 있다.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객이 전도되어 예산이 지원되면서 자발성이 퇴색하고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 때문에 실적을 내기 위한 사업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 초창기에 비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의 수준이 높아져서 중간지원조직은 더 전문화될 필요를 느끼고 있다.

마을기업은 실제 이윤보다 사람을 생각하며 마을기업 활동을 시작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력 단절여성, 건강약자, 노인 등 기존의 고용영역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취업약자들이 각자의 체력과 역량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수적이지만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전교육이나 심사과정에서 주민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수단으로서의 사업 내용이나 방식보다 중요한 본질인 사람이 간과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빠르게 성과를 산출해야 하는 공공의 짧은 사업 주기 때문이다.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며,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문제를 돌볼 수 있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나타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개선방안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실적을 내야 하는 공공의 호흡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짧은 사업 기간동안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빠르게 성과를 산출해야 하는 공공의 짧은 사업주기가 보태져서 실적 위주로 사업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의 짧은 주기 안에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문제를 돌볼 수 있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본인 스스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것에 뿌듯해하는 그 단계인데,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마을기업 사례를 보면, ‘아이 곁에 있고 싶어서’와 ‘시간제 일자리’가 돌봄 활동에 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돌봄은 규격화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일률적인 틀에서 맞춰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하고 싶지만 하루 8시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터가 될 수 있다. 한편 마을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 협동조합은 ‘필요’에 의해 모인 사람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기에 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으로는 한 사람의 일자리를 더 늘리거나, 아이들이 먹는 식사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본래의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

04

마을과 복지는 어떻게 만나는가

- 1_사회복지기관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 2_마을 주민과 기관들의 만남
- 3_소결

04 마을과 복지는 어떻게 만나는가

1_사회복지기관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서 접점이 생김

어르신 돌봄, 홀몸어르신 반찬 나눔사업,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의 측면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복지기관 사업의 내용상 접점이 존재한다.

재가노인센터에서 홀몸 어르신들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반찬 나눔 사업, 기부 사업을 그쪽에다 하고 있고. ③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복지기관 사업의 영역이나 대상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기관이 대상자를 소위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마을공동체사업의 대상은 일반주민까지 확대된다.

저희는 취약계층을 가리지 않아요. 창동추진지원단을 맡은 법인이 복지관인 다른 구와 달리, 저희는 복지관 쪽에서 맡은 게 아니라 여기 풀뿌리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하고도 네트워크를 잘하시기도 하셨지만 굳이 너무 어려우신 분을 애써 찾아서 이렇지는 않아요. ②

한편 앞서 살펴본 마을기업 사례에서 경력단절여성, 건강약자,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주요 목적이기도 했던 것처럼, 마을공동체 또는 마을기업 사업의 주체로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서비스 대상자,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일 것이다.

2) 마을기업과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만난다

마을기업은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만날 수 있다. 2장의 세 번째 사례인 ‘아이 주변에서 일하려고 만든 마을기업 활동가’처럼, 마을기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급식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입소문을 타고 도시락 사업으로 확장되고, 어린이집에서도 문의가 오고, 재가노인센터 홀몸어르신을 비롯하여 지역에서 반찬 나눔 활동도 하고 있다. 마을에서 ‘건강한 먹거리’라는 공통 의제로 주민과 기관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관의 주민조직화 사업 중 하나로 만난다

사회복지기관은 정부지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고유 사업이 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에서 복지관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업에 지원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즉 예산 사용이나 행정처리 지원 등을 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돕는다. 주민들이 사업 공모 준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면서 성장하여 마을활동가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반찬을 만드셨던 할머니들이나 어머님들이 제안하시면 저희가 이제 선정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복지관 공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 직원이 오셔서 그 기관의 사업으로 수행한다고 하시는 건 저희가 선정이 어렵다. ②

복지관 입장에서는 어머님들이 여기서 그냥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활동가로 어머님들을 키워내는 걸로, 또 한 편으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②

복지관 직원이 제안서도 써주고 정산도 해주면 문제가 되는데, 그 할마님이

떨리지만 여기 와서 “나는 반찬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발표도 하시
고... 그리고 영수증 끊는 건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이렇게 해보셔서 내년
에는 완전히 혼자 하시게 되는 걸 저희는 기대하면서 선경하는 거죠. ②

4) 지원조직과 사회복지기관의 공식적인 연계체계는 없다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주민 조직화의 하나로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마
울공동체지원센터가 지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기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 정례적인 회의 등 공식적인 연계 체계는 없다.³⁾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원조직으로서 사회복지기관과 센터가 각각 존재할 뿐
이다. 관련 행정이나 제도·정책에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청을 중심으로 위탁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 연계되
어 있을 뿐이다.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연락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복지관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 안에서) 부딪치지는 않고요. 복지
사도 예산을 또 받아오면 좋잖아요. 반찬 두 그릇 만들 거 열 그릇 만들
수 있잖아요. ②*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또 우리가 안 하는 다른 분들을 해주
면... 뭐 좋은... ②*

*그렇게 행정 라인에서 조정어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마
울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기준 중에서 제외되는 거는 각 기관, 단체의 고*

3)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사회복지기관과 마찬가지로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구청 업무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기관도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지침과 법률상에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명확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과 복지각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유 사업은 안 된다. 해서 이제 복지관에서도 마을 지향하고 계시는데, 작년인가 복지관 직원이 저희 제안서 심사를 보러 오셨어요. ②

2_마을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1) 마을 주민과 기관의 만남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친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그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 프로그램과 중복여부 등 검토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저희가 어른들을 모을 수는 없으니까 □□센터에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때 저희를 불러 주시면 이루어야 할 활동을 하겠다.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④

자기들(□□센터 담당자)한테는 가윗일이 되는 거죠. 자기네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기네 일정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이 뭔가 계속 회의적으로 느껴지는데, 도우미처럼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오히려 편한 거예요. ④

관이라는 데가 아직은 그 정해진 틀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기획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뭔가 그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아직 약간 머릿속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거 같아요. 현재 보면. ④

센터에는 조직이 있고 상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봉사하러 온 사람이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저희는 하고 싶은 거고 그분들은 그냥 이 틀

안에서 이 안에서만 움직여 줘야 하는 거 아닌가. ④

2) 활동가 교육과 이어지는 마을 활동 간의 간극

교육과정에서 활동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에는 공감하였지만, 실제 주민들의 역량은 이를 실현하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 있다. 봉사활동을 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지만, 캠페인이나 청소 같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돌봄과 같은 활동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관 담당자는 참여자와 수혜자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도우미 역할에 그친다고 느껴질 때 활동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을 받고 이럴 때는 [센터와]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맨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받고 느낀 거는 '그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점점 도우미가 돼 가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 지시가 내려와서 이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날 모여 주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봉사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4번 하세요. 5번 하세요." 이러니까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돈 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돈 받고 한다고 그랬냐." 봉사라 하면, 자기가 맞게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④

저는요. 당당했거든요. 이 자원봉사는 한 가지 당당함이 있다는 거. 난 국가에서 돈 안 받아. 네(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는 돈 받지? 돈값을 해야 해. ⑤

3) 주민들이 보기에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음

찾동이 운영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발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서류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어려운 애들이라고 한 번 못 박은 애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래서 채도 뭔가 받을 수 있겠는데?” [선생님들이] 찾기 싫은 거죠. 우리 이번에 어디서 예산 얼마 나왔는데 어려운 애들 몇 명 뽑아봐. 그럼 애는 맨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말도 못 하는 재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살 아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발굴이 안 되는 거죠. ④

이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서류에서 걸릴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지금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 이 사람은 서류상은 그렇지 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를 관이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④

3_소결

마을공동체 활동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기관 사업의 내용과 접점이 생기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고용취약계층 일자리로서 사회복지기관의 일자리사업과 만날 수도 있다.

마을의 필요로 만들어진 마을기업은 서비스 제공자로서 사회복지기관과 만나고 있다. 시장의 영역에서 충족할 수 없는 욕구를 마을기업을 이용해 사회복지기관

은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복지기관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준비가 부족한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조직과 사회복지기관의 공식적인 연계는 없고 개별 담당자 수준에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서 기관과 주민이 취지에 동의하여 사업을 함께 하지만, 기관 본연의 목적 사업이 있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는 다양하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05

제언

05 | 제언

이 연구는 주민들이 마을활동가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마을기업 준비와 활동을 들여다보면서 마을과 복지가 만나는 지점을 찾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마을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관계 맺음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마을활동의 주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마을활동의 대부분은 낮 동안 마을에 머물 수 있는 전업주부나 노인이 주요 참여자이다. 활동에 참여가 필요한 성별·연령대와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주민의 특성 간 간극이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층,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민들을 마을활동에 끌어들이면서, 활동이 가능한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참여를 확대해 가는 방안도 중요할 것이다.

둘째, 마을활동 참여자들의 연령대에 따른 욕구의 차이가 다소 있다. 봉사활동의 주축은 60대 이상이다. 세대별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심 영역이 달라서 현재 어르신들의 방식으로는 젊은 층에서 함께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 리더그룹이 70대인 경우, 40~50대가 의견을 내놓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차이도 있다. 노인층은 서비스기관의 도우미 역할이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일회성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젊은 층은 본인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더욱 전문적인 활동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세대별로 원하는 활동 내용의 차이를 반영한 사업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주민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을 도모해 오다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다소 취약한 주민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사회복지기관은 지역주민 조직화라는 목적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주민이 임파워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 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은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주체로 세우는 지역사회 복지실천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데, 그것이 기관 사업과 다소 중복되거나 내용이나 방식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가 기관과 주민이 만날 때 서로 관점의 차이가 포착되는 지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은 연간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마을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기관이나 수혜자 입장을 설명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8-04

마을만들기와 사회복지서비스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10월 2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